

시민권 신청 심사 더 깐깐해진다

이민국 지침, 도덕적 품성 판단에 교통 위반도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한층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이민 혜택 접근을 제한하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연방 이민국(USCIS)은 15일 발표한 지침에서, 시민권을 신청한 합법 이민자들의 '도덕적 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라고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영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거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어·시민 지식 시험과 함께 '도덕적 품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적 음주 등 이민법이 명시한 범죄나 비위 행위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정책은 단순히 범죄 이력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신청자의 행동, 사회 규범 준수, 긍정적 기여 등 '총체적 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학력, 합법적 고용, 거주 기간, 납세 이력 등이 긍정적 요소로 제시됐다.

반대로, 법률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시민으



로서의 책임감과 어긋나는 행동'은 부정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상습적·무모한 교통 위반, 괴롭힘, 공격적 권유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갱생 노력이 확인되면 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예컨대 집행유예 조건 이행, 밀린 세금·양육비 납부, 지역사회 추천서 제출 등이 해당한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60만~100만 명의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저서는 CBS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지침은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권으로, 미국 문화·역사·언어를 수용할 뿐 아니라 도덕적 품성을 입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 관계자였던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은 교통 위반 같은 사소한 행동까지 문제 삼으며 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을 공개적으로 강화해왔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합법 이민 절차도 조용히 제한해왔다. 난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합법 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며, 특정 국가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소셜 미디어 활동 심사와 엄격한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도덕적 품성' 강화 지침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까다롭게 만들고, 나아가 합법 이민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학생 6,000명 이상 비자 취소

대부분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지원 이유

국무부가 법 위반과 체류 기간 초과 등을 이유로 6,000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의 대다수가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및 유학생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무부는 테러 지원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을 반유대주의적 행위를 했다고 규정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취소된 6,000여 건의 학생 비자 가운데 약 4,000건은 방문자가 미국 내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 중 200~300건은 이민법 제3B조에 따른 테러 활동 혐의로 취소됐으며, 이는 인명 위협이나 미국 법률 위반 행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규정이다.

앞서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학생 비자 예약 일

정을 일시 중단했다가, 6월에 재개하면서 모든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심사를 강화했다. 국무부는 신청자의 계정에서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징후를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관들에게 "외국 테러단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자, 국가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자, 불법적인 반유대적 괴롭힘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자를 선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의회 청문회에서 "올해 1월 이후 수천 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며 "아직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손님으로 와서 고등교육 기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2023~24학년도 미

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제 유학생은 210여 개국에서 온 110만 명 이상에 달했다.

날말퍼즐 정답							
1	은	2	연	3	중	4	목
5	연	6	인	7	간	8	제
9	자	10	개	11	초	12	지
13	대	14	중	15	교	16	연
17	합	18	문	19	통	20	병
21	실	22	적	23	반	24	장
25	15	26	불	27	어	28	로
29	17	30	등	31	분	32	행
33	이	34	서	35	주	36	동
37		38	20	39	전	40	용
41				42	선		

PREMIER TAX GROUP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JUNGHOOON KIM
E.9923003@gmail.com
C.714.335.8256
카톡 ID: Junghoon123

프리미어 텍스 그룹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